

이스라엘-팔레스타인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 회의 개최

-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
- 수출 중소기업과 현지진출 기업 피해 조사 및 전황에 따른 지원 방안 강구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,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11일 세종 중소기업부 청사에서 개최했다.

동 회의에서는 현지공관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, 현재 동향 및 분쟁상황이 심화될 경우 이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세계(글로벌) 경제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.

*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는 상황(10.11 오전 기준)

우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피해를 점검하고, 특히 중동에 수출중인 1만여개 중소기업('23.1~8월 기준 10,924개사)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키로 했으며, 접수된 피해 현황을 종합해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였다.

또한, 유가 상승 등 이번 사태의 세계(글로벌)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수단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,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도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.

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“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로 양측 사망자가 2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, 대립 장기화, 주변국 확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위험(리스크) 관리를 해야할 때”라며,

“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업과 함께 이번 분쟁의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중소기업정책실 국제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수민 (044-204-7550)
		담당자	서기관	박승호 (044-204-7556)



□ 회의 개요

- 일 시 : '23.10.11(수), 13:30 ~ 14:00
- 장 소 : 세종 경청마루 ※ 중기연 및 외부전문가 영상 연결
- 참 석 : 차관(주재), 글로벌성장정책관, 중소기업정책관, 창업정책관, 국제협력통상과장, 중기연 최세경 센터장,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원

□ 논의 안건

-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사태 관련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

□ 진행 순서

시 간	주요 내용	비고
(10)	동향 및 전망	백승훈 연구원(중동 전반) 최세경 센터장(중소기업 영향)
(15)	토 론	참석자
(5)	마무리 말씀	차관